

#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여 시민 중지 모은다

### 광양시의회 다음달 4일 시민 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 찬반 주제발표 등 타당성 논의...공동대응 방안 모색

광양 명산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 양여 문제를 놓고 시민 토론회가 열린다. 광양시의회는 다음달 4일 광양읍사무소에서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백성호 의원이 제안해 광양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양백운산지킴이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임상준 서울대 학술림장과 이경재 전 백

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장이 각각 백운산 서울대 무상 양도에 대해 찬반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석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정용성 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장, 박주식 백운산지킴이협의회 추진위원장, 이광신 광양시 환경정책팀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에서 핵심사항이 될 백운산 무상 양여 문제는 2010년 10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면서 급부상했다. 이 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가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과 물품을 대학으로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과 물품은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대 측에서 기획재정부로 백운산 학술림 중 일부를 양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에 국유지로 편입됐고, 미군정 때 서울대에 무상으로 임대됐다. 이에 광양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백

운산 국립공원 지정, 국유재산 존치 등 서울대 법인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해 왔다. 특히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의 관리권은 환경부나 산림청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성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과연 서울대가 요구한 백운산 양여 면적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와 광양시, 그리고 서울대 및 백운산지킴이협의회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관련 유관기관 회의.

## 광양항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속도'

### 10월 내 실시설계 용역 착수

광양항 배후단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이 오는 10월 착수될 전망이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상황 설명을 위해 지난 27일 광양항 국제교류관(FTZ)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남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광양시 등 유관기관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4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한전 관계자는 광양항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중화 협약 체결이 늦어진 이유로 백운변전소~광양항~울촌산단을 연결하는 구간의 시공예산과 공기단축, 준공시기 등의 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본사의 지중화 심의 승인 후 9월 중 광양시와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안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한전의 지중화 심의 승인 및 지중화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조속히 실시해 154kV 전력공급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해 백운변전소에서 광양항 배후단지 7.5km구간에 지중화 선로와 2000㎡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세계 최초 김 양식지 태인동 공기마을에 김 역사 담은 벽화 조성



세계 최초 김 양식지로 알려진 광양시 태인동 공기마을에 김 역사를 담은 벽화가 조성됐다. 벽화는 김 생산 과정을 아가자기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태인동은 1643년 김여익이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벽화는 김여익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과 사적비·유물전시관 등으로 조성된 김 시식지(전남도 기념물 제113호) 옆 골목에 그려졌다. 10월 20일에는 제1회 태인문화제가 열려 김 생산 재현행사와 김 풍작을 기리는 '용지 큰줄다리기' 시연이 열린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광양시 동반성장 혁신허브추진위, 기업체 방문 격려·의견 청취

광양시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울해 동반성장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 김학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광양제철소 기술혁신그룹 그룹장과 혁신리더, 광양상공회의소 회원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DSR(주) 광양공장장 사량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혁신활동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뒤 적극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현복 시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땀 흘리신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드린다"며 "동반성장 혁신활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공기관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영 노하우와 혁신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체 98개사, 공공(행정)기관 40개소, 소상공인 14개소 등 총

152개소가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는 14개 기업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6개소, 소상공인 1개소 등 총 21개소가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대중교통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광양시는 여성·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안심귀가 서비스'〈사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택시 468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광양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QR코드를 직접 인식시키는 수동방식에서 모바일 앱으로 변경했다. 모바일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광양안심귀가'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모바일 앱을 설치한 시민이 시내버스나

택시에 승차하면 자동으로 탑승차량의 번호 등 차량정보와 위치정보가 사전에 지정된 가족 또는 지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자로 전달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가방이나 휴대폰 등 소지품을 놓고 내렸을 경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범죄와 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으로 주로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한



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성 안전·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법사랑위원회 광양지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광양보호관찰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법사랑위 광양지회들은 지난 27일 광양여자중학교를 방문,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과 전단지 배부하는 한편 플래카드와 피켓 등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우정과 학교 폭력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물품을 나눠주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냈다. 박신주 법사랑위 광양지회장은 "광양 청소년들을 위해 법사랑위원회는 등굣길 캠페인과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랑위 광양지회는 지난 2014년 박 회장 취임 후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물론 광양지역 독거노인 주택주거환경 개선 및 도배장판 봉사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66주년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